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ADP 발표, '6월 민간 일자리 고용 점차 완만'
- Bloomberg: 미 지속적인 실업수당 청구건 9주 연속 증가
- Bloomberg: 미 무역적자 2022년 이래 가장 커… 수출 약세로 적자
- WSJ: 연준 파월 의장, 금리 인하 시사

[미국 금융]
- Bloomberg: 오늘 고용 위축 보고서로 국채 수익률 하락세

[7/4 공휴일]
- 7월 4일 공휴일 문 여는 곳

[주택]
- Bloomberg: 미국인 주택 구매력은 2007년 이래 가장 낮아
- CNN Business: 수천 명의 주택 소유자들 월 평균 비용으로 허덕인다
- CNBC: 현재 맨해튼 주택 시장은 구매자에 유리

[에너지]
- Bloomberg: 미국, 현재는 에너지 잉여분 늘어난다
- CNBC: 유가, 미국 재고 데이터 발표 앞두고 강세 유지

[중국 경제]
- WSJ: 중국 서비스 부문 경제 성장 둔화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N Business: 기록적 여행객에도 웃지 못하는 항공사들
- CNBC: AI 드라이브 스루 주문, 상용화까지 기술적 결함 해결이 과제
- WSJ: GE 가전, 공급망 재편으로 매출 두 배 증가
- WSJ: 중고 의류 시장의 인기와 비즈니스 기회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Job Market Shows More Signs of Slowing in ADP and Claims Data
ADP 발표, '6월 민간 일자리 고용 점차 완만'

- 미 노동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상황이 더 확실해지고 있다.

- 오늘 발표된 ADP Research Institute 자료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6월에 근로자들을 더 완만한 속도로 고용하고 있으며 민간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

었다.

- 이번주 금요일 연방정부의 6월 일자리 보고서가 발표되는 상황인데 구인 수요는 더 적은 것으로 보인다.
- ADP 보고서는 6월에 민간 일자리 15만개가 증가했는데 주로 레저와 호텔 등 환대 산업에서 증가했다.
- 한마디로 일자리 시장은 여전히 견고하지만 6월의 경우 레저와 환대 산업의 일자리 증가가 없었다면 하향했을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Continuing Jobless Claims Increase for a Ninth Straight Week
미 지속적인 실업수당 청구건 9주 연속 증가

- 지속적으로 신규 실업을 청구하는 건수가 9개월 연속 상승해 2019년 이래 가장 긴 기간 청구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일자리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 지속적인 실업 청구 건수는 지난 6월 22일 끝나는 주에 1백86만건으로 증가해 지난 2021년 11월 이래 최고치라고 미 연방 노동부는 수요일 밝혔다. 지난주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4천건이 증가한 23만8천건이다.
- 한편 Challenger, Gray & Christmas에 따르면 미국의 기업들은 6월에 48,786개의 일자리를 줄였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Trade Deficit Widens to Largest Since 2022 on Weaker Exports
미 무역적자 2022년 이래 가장 커… 수출 약세로 적자

- 5월 미국 무역 적자가 지난 2022년 이래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수출 감소가 수입 감소보다 더 컸다.
- 6월 상품과 서비스 적자는 전월에 비해 0.8% 증가한 7백51억 달러로 나타났다고 연방 상무부는 오늘 수요일 발표했다. 블룸버그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7백65억불.
- 반면에 상품과 서비스 수출 총 규모는 0.7% 감소한 반면에 수입 규모는 0.3% 줄었다.

Bloomberg 기사

WSJ: Powell Talks Up Progress, Putting Rate Cuts Back Into View
연준 파월 의장, 금리 인하 시사

- 파월 의장은 어제 화요일 포르투갈에서 열린 중앙은행들 컨퍼런스에서 미 인플레 회복이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초 인플레 반등이 후에 인플레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희망적이지만, 올 여름 말까지 금리 인하 여부는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그는 2년 전에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 때문에 임금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한 후에 노동 시장이 상당할 정도로 균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신중하지만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경제가 안정된 성장 속에서 인플레가 둔화되는 진전된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 그러나 그는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 이번 7월 하순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WSJ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Treasury 10-Year Yield Falls After Soft Jobs Data: Markets Wrap
오늘 고용 위축 보고서로 국채 수익률 하락세

- 미국 경제의 약세를 보여주는 보고서가 발표되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식은 상승하고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오늘 수요일에 미국 서비스 분야가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는 보고서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 이에 따라 10년물 국채 금리는 7베이시스 포인트 줄어든 4.36%로 하락 중이며 S&P 500 지수는 거의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테슬라는 랠리지만 엔비디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델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고 종목 리스트에 들어가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오늘 증시는 내일 독립기념일로 일찍 끝난다.

Bloomberg 기사

[7/4 공휴일]

7월 4일 공휴일 문 여는 곳

- 소매업: 타겟과 월마트를 비롯해 크로거 등 대부분의 그로서리 업체들은 문을 연다.
- 우편 서비스: 연방 우체국은 문을 닫고 FedEx도 FedEx Custom Critical를 제외하고 문을 닫는다.
- 금융 서비스: 대부분의 은행들과 나스닥 및 뉴욕 증시는 문을 닫는다.
- 정부 기관: DMV와 공공 도서관은 화요일부터 문을 닫는다.

[주택]

Bloomberg: Home Affordability in the US Sinks to Lowest Point Since 2007
미국인 주택 구매력은 2007년 이래 가장 낮아

- 미국인 평균 소득자들이 집을 마련하는 것은 17년 전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모기지율과 부동산 보험료, 세금 등을 포함한 전형적인 주택 비용은 올해 2분기에 평균 소득의 35.1%를 점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7년 이래 가장 큰 부담률이며 작년 32.1%에서 더 올랐다. 관련 Attom의 보고서는 이와 같이 밝혔다.
- 매물 부족으로 주택 중간값이 36만불로 최고치로 상승하는 데다 모기지율이 7%로 소득 증가율보다 높아 주택을 구입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크게 부담이 되고 있다. 주택 시장의 3분의 1 이상에서 주택 소유 비용이 평균 수입의 43%로 크게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28%가 구매력 비용로 간주되고 있다.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Thousands of homeowners are about to get slammed with higher monthly payments
수천 명의 주택 소유자들 월 평균 비용으로 허덕인다

- 일반적으로 인기가 더 좋은 고정 모기지 융자와는 달리 초기 고정적인 기간에 모기지율이 낮은 변동 모기지 융자는 높은 모기지율을 피하기 위한 구매자들에게 일시적인 기간에 혜택을 준다. 그러나 보통 첫 5년, 7면, 10년 동안의 초기 고정 기간이 지나면 변동융자 금리는 현재의 시장 여건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금리가 조정된다. 한마디로 모기지율이 올라가면 월 지불액이 늘어나는 것이다.
- 5년전에 변동금리 융자를 했던 수천 명은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 데이터 제공 업체인 Intercontinental Exchange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래 1백70만명이 변동금리로 주택을 구입했다. 5년 전에 변동금리로 주택을 구매한 많은 이들은 올해 매월 부담액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CNN Business 기사

CNBC: Manhattan is now a 'buyer's market' as real estate prices fall and inventory rises
현재 맨해튼 주택 시장은 구매자에 유리

- 매물로 나와 있는 맨해튼 주택이 늘어나면서 맨해튼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한마디로 주택 매각에 시간이 더 걸리는 상황이다.
- 관련 통계에 따르면 맨해튼의 평균 부동산 판매 가격은 3% 감소해 2백만 불을 약간 초과하고 있다. 중간 가격은 2% 하락한 1.2백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맨해튼 고급 아파트 가격은 2년여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 구매자와 매각자 간의 가격에 대한 예상치가 줄어들고 있어 거래가 더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 구매 시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잠재적인 구매자들은 맨해튼의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CNBC 기사

[에너지]

Bloomberg: US Is Enjoying a Growing Energy Surplus — For Now
미국, 현재는 에너지 잉여분 늘어난다

- 지난주 미국 대선 토론에서 에너지 문제는 간략히 언급되었지만,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의 사건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 "1월 6일에 우리는 에너지 독립국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당시에도, 현재도 진정한 에너지 독립국은 아니다.
-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주요 수출국이지만, 특정 유형의 원유와 러시아산 우라늄을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셰일 붐 덕분에 2020년 트럼프 정부 시기에 미국은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석유 순수출국이 되었다. 또한, 풍력 및 태양광 발전도 경제성 개선, 기술 발전, 우호적인 정책 덕분에 증가했다.
-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런 추세는 계속되어 지난해 총 1차 에너지 생산량이 최고 기록을 세웠다. 미국 에너지 정보국에 따르면 화석 연료, 원자력 및 재생 에너지의 총 생산량은 4% 증가하여 거의 10만3천조(quadrillion)

BTU에 달했으며, 소비량을 제외한 마진도 9천조(quadrillion) BTU로 1949년 이후 가장 높은 잉여분을 기록했다.

- 이러한 과잉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세금 인센티브는 더 많은 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를 가속화할 수 있지만,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성장 둔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붐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설립되면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Bloomberg 기사

CNBC: Oil prices hold firm as traders wait on U.S. stockpile data for signs of where demand is heading
유가, 미국 재고 데이터 발표 앞두고 강세 유지

- 수요일 원유 선물은 미국 재고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강세를 보였다. 특히 휘발유 수요 회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지난달 미국 원유 가격은 여름철 연료 수요 회복으로 재고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3분기 긴축 기대감에 약 6% 상승했다. 연방 에너지부는 곧 최신 원유 및 휘발유 비축량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다.
- 미 운전자 협회 AAA에 따르면, 7월 4일 연휴를 앞두고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 대비 약 2센트 상승하여 갤런당 평균 3.51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CNBC 기사

[중국 경제]

WSJ: China Services Sector Gauge Shows Slowdown in Activity Growth
중국 서비스 부문 경제 성장 둔화

- 중국 서비스 부문의 민간 지표인 Caixin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가 6월에 51.2로 하락해 8개월 만에 가장 느린 성장 속도를 보였다.
- 이는 2023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18개월 연속 확장 영역에 머물러 중국의 서비스 경제가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2분기 말까지 계속 성장했음을 나타낸다.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그 미만이면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 Caixin에 따르면 기업 활동과 총 신규 주문은 18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6월에는 그 속도가 둔화되었으며, 신규 주문 지수는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편 신규 수출 주문은 관광 지출 호조에 따른 강력한 외부 수요에 힘입어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CNN Business: Record numbers of people are flying. So why are airlines' profits plunging?
기록적 여행객에도 웃지 못하는 항공사들

- 이번 연휴 여행 주간에는 미국 공항 이용객 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사 운영에 유리한 상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을 그렇지 않다.
- 항공사들은 연료비, 인건비, 이자율 등 비용 상승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보잉사의 문제로 인해 노선 확장에 필요한 비행기가 부족한 상황이다. 높은 예약률이 이러한 재정적 압박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 승객에게는 단기적으로 항공 요금이 원가보다는 수요와 공급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좋은 소식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항공사의 어려움이 항공 노선 감소와 승객의 선택권 축소로 이어져 비행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CNN Business 기사

CNBC: AI drive-thru ordering is on the rise — but it may take years to iron out its flaws
AI 드라이브 스루 주문, 상용화까지 기술적 결함 해결이 과제

- 인건비 절감을 위해 레스토랑들이 인공지능(AI) 드라이브 스루 주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상용화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전미 레스토랑 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레스토랑 운영자의 16%가 음성 인식을 포함한 AI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맥도날드가 IBM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도입한 AI 자동 주문 접수기의 시범 운영을 종료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적 결함이 상용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해당 AI 주문 접수기는 다양한 억양과 방언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주문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 AI 주문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들은 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SoundHound는 자사의 AI가 90% 이상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으며, 드라이브 스루 차선의 속도를 약 10%까지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AI 도입에는 부정확한 주문으로 인한 지연과 그에 따른 불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노년층 고객은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기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 속도를 높여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복잡하고 긴 메뉴가 있는 레스토랑은 AI 주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CNBC 기사

WSJ: GE Appliances Spins Stronger Sales from Supply Chain Overhaul
GE 가전, 공급망 재편으로 매출 두 배 증가

- 미국 최대 가전제품 제조업체 중 하나인 GE 가전은 공급망 재편을 위해 20억 달러를 투자한 결과, 2017년 이후 매출이 두 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 켄터키주 루이빌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제조 역량을 추가하고 7개의 유통 센터를 개설했으며, 생산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통합하는 디지털 도구를 도입했다.
- 물류 담당 부사장인 Marcia Brey는 팬데믹 동안 제품 부족 문제에 대처한 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변화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유통 운영 방식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공급망이 필요한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고민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WSJ 기사

WSJ: Your Old Clothes Are Worth Billions
중고 의류 시장의 인기와 비즈니스 기회

- 옷장에는 입지 않는 옷이 가득하고, 중고 거래가 유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물건을 찾고 있다. 이는 비즈니스 기회로 보이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따른다.
- 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1년에 약 70파운드의 옷을 버린다. 특히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중고 거래가 인기를 얻고 있다. 온라인 의류 리셀러인 Thread Up의 연례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중고 의류 시장 규모는 약 430억 달러에 달했으며 2028년까지 연평균 약 1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하지만 중고 의류 판매자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적 문제로 인해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고 의류 공급량과 품질 간의 균형을 맞추기도 어렵다.

WSJ 기사

미국 등 세계 정부 부채 12경원 넘어..."정치권 대응 시급"

미 CNN 지적..."정치인들, 선거 앞두고 문제 회피"

전 세계 각국 정부의 부채 규모가 천문학적 규모로 늘었지만 정치권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CNN방송은 2일(현지시간) 각국 정부의 부채가 세계 경제 규모와 거의 맞먹는 91조 달러(약 12경6천조원) 수준이며,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점점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문제는 올해 각국이 굵직한 선거를 앞둔 가운데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으며, 증세나 재정지출 축소 등 해결 방안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솔직히 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